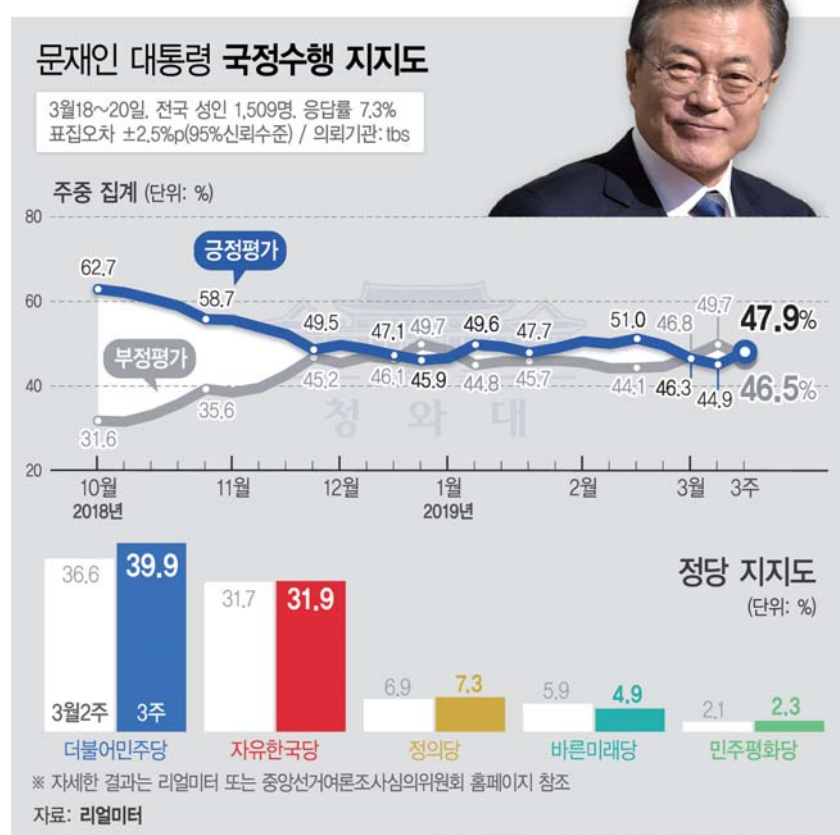


文 지지율 3%p 올라 47.9% “중도층 큰 폭 결집해 반등”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개혁 둘러싼 대립선 뚜렷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3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40%대 중후반으로 반등했다. 전주 대비 3%p 오른 47.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8~2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상대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3월3주차 주중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7.3%)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9%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결집하면서 반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이번 반등세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비위 의혹, 고(故) 장자연씨 리스 트 사건, 버닝썬 사건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연루 정황이 있는 특권층 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여당과 보수야당 간 개혁을 둘러싼 대립선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세를 고무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서울(▲9.8%p, 42.3%→52.1%, 부정평가 44.0%)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구·경북(▲7.8%p, 30.4%→38.2%, 부정평가 55.7%), 경기·인천(▲2.0%p, 47.5%→49.5%, 부정평가 44.8%), 대전·

세종·충청(▲1.5%p, 47.5%→49.0%, 부정평가 44.3%)에서도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6.5%p, 55.1%→61.6%, 부정평가 33.0%)에서 오름세가 가장 컸다. 50대(▲3.5%p, 39.7%→43.2%, 부정평가 52.7%), 20대(▲2.6%p, 44.0%→46.6%, 부정평가 46.7%), 40대(▲1.9%p, 57.4%→59.3%, 부정평가 35.2%), 60대 이상(▲1.7%p, 33.4%→35.1%, 부정평가 58.8%) 등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7.3%p, 43.5%→50.8%, 부정평가 45.4%)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 보수층(▲3.5%p, 18.2%→21.7%, 부정평가 74.4%)에서도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1.3%p, 65.1%→63.8%, 부정평가 32.8%)와 학생(▼1.7%p, 45.6%→43.9%, 부정평가 54.7%), 진보층(▼2.0%p, 72.2%→70.2%, 부정평가 26.9%)에서는 소폭 내렸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과 궤를 같이하며 내림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주 동안의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했다. 40%선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3.3%p 오른 39.9%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0.2%p 오른 31.9%를 나타냈다. 리얼미터는 “대정부질문 등 공세를 연일 이어가면서 보수 성향의 무당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일부가 결집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 7.3%, 바른미래당 4.9%, 민주평화당 2.3% 순으로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2.2%로 조사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김관영 “文대통령, 인사참사 부른 조국 수석 바꿔야”

“이제는 인사검증 무능 넘어 무책임 일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의원,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를 불러온 조국 민정수석을 이제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는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이제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각한 결격 사유를 그냥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부 내각인사 부실 검증은 물론이고 있으나미려한 검증기준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 등 수많은 무책임·무능·무관심 사례만 보여줬다”며 “문 대통령이 여짜지고 이런 인사참사를 보고만 있는지 개탄스럽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걸림돌을 속히 걷어내야 한다”고 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예정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송곳 검증을 할 것”이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 역시 변명 권리가 아니라 반성과 사과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여야 원내대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방중 추진

여야 원내대표들이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을 추진한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은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와 선전을 등을 방문한다.

산업혁명 관련 현장 시찰을 가질 계획이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이나 선전에 위치한 중국 기업 바이두 방문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일정에는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 등 각 당 별로 3명이 동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원내대표들이 동행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계획했다”며 “아직 세부 일정과 방문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임시헌장 공포를 기념한다는 의미 있는 만큼 초당적인 차원에서 계획된 행사”라며 “상하이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국회 차원에서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원내대표들이 다 같이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을 가보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며 “의원 외교활동 차원에서 중국을 방문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뿐 아니라 민주당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별위원회도 다음달 10일부터 2박3일간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임시정부가 임시 헌장을 공포한 4월11일을 기념하기 위해 의원 10여명과 이번 일정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4월10~13일, 3박4일 상하이·광저우·선전 방문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 참석
- 광저우·선전 기업 찾아 4차산업혁명 현장 시찰

홍영표 “황교안 ‘김학의 사건’에 과민반응 보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별장 성비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차관과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2%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제대로 실현하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한국당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원내대표단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제 세미나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관 ‘실리콘 벨리’라 불리는 광저우와 선전을 방문해 4차

지역구감,미래창조,전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